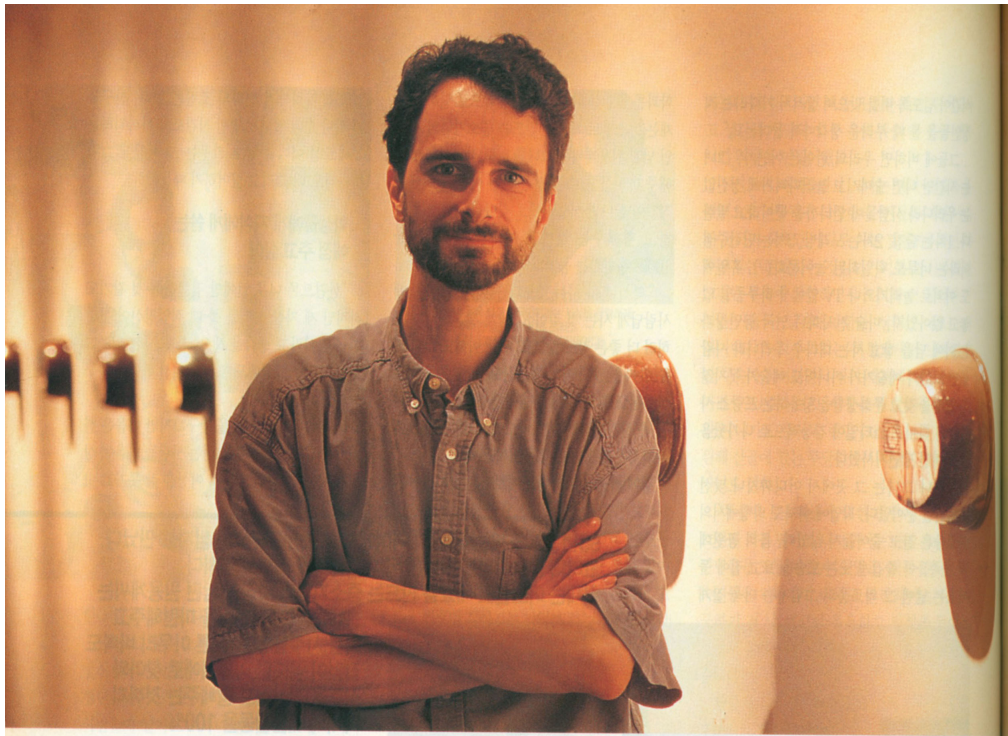


"중증 장애아 딸이 내게 가르쳐준 놀라운 일들을 들려드립니다"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팀 로올리씨는 자신의 고향은 전주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문화와 정서에 바탕을 두고 중증 장애아인 딸을 기르며 느끼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림으로 그린다.

글 · 박수진(아트스페이스 서울 큐레이터)/사진 · 전민조 기자

전주가 '고향'인 미국인 화가 팀 로올리가 뚝배기 바닥에 그린 세상

따뜻한 인간애를 그리는 화가 팀 로올리(39). 그의 그림에는 시를 읽을때 느껴지는 잔잔한 감동이 있다. 5월2일부터 30일까지 아트스페이스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그는 뚝배기와 방패연, 한지와 같은 한국적인 소재에 장애아동의 모습을 담아냈다. 전시회에 온 많은 사람들은 한국적인 소재에 한국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작품을 그린 작가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팀 로올리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시카고 아트페어'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는 작가로 시카고 노스파크 대학교 미술관의 관장이기도 하다.

로올리는 자신의 고향이 전주라고 말한다. 그의 개인사를 알고나면 그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적 정서가 얼마나 진한 한국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장기를 이곳에서 보냈다.

"3살 때 한국에 와서 중학교 때까지 전주에서 살았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요. 한국에서 보낸 시기는 내게 파라다이스였어요. 방학 때면 전주 근교와 이리의 벌판을 뛰어다니기도 했고 꿩사냥도 다녔던 아주 행복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 거주지역에서 살면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데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전부여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것마저도 잊어버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고향이 보고 싶어서 성인이 된 후 83년 다시 한국을 찾아왔다.

"1년 동안 전주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전주는 어릴 때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공부했던 학교는 낡고 모습이 변해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고 도시는 무척 복잡해졌어요. 그때 나는 한국에서 많은 전시를 찾아 보았는데 그중 서울미술관의 〈문제작가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민중미술을 처음 접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내가 인간과 함께 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증 장애아 딸이 예술의 원천

팀 로올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그린다. 한국에서의 유년이 행복했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한국이라는 단일 민족국가에서 이방인으로서 겪었음직한 소외, 그후 한국에서 성장한 청년으로서 미국생활에서 겪게 된 문화적 이질감은 결국 그가 사회라는 범위 밖, 소외된 이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됐다.

뚝배기 바닥에 그린 장애아의 모습.

그리고 그의 작품에 또다른 원천이 되는 그의 딸, 테마는 이러한 작업을 더욱 심화시키게 했다. 그는 테마로 인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지며, 깊은 애정과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테마가 어떤 딸이기에 그의 예술의 한 원천이 되었을까?

"내 작품 안의 아이는 테마이거나 테마와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테마는 중증 장애아입니다. 앉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누워 있기만 합니다. 하지만 테마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딸 아이는 정상아로 태어났지만 생후 이틀만에 숨이 멎는 등 생과 사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5주 정도를 혼수상태로 지냈지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때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고 아이를 숨기거나 심지어 해외로 입양보내는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딸아이의 장애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 사실을 적극 받아들였다. 그리고 중증 장애아인 테마를 키우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키워왔다.

"나와 내 아내는 테마를 키우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마는 지금 12살이에요.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그의 딸 테마. 12살이지만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누워서 지낸다. 하지만 그는 그런 딸을 기르는 일이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꿋꿋하게 받아들인다.

담배를 피운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테마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그런 문제로 우리 부부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테마를 키우는 것이 다른 정상아들을 키우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양육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로올리 부부는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용기있는 이들이다.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던 청교도들처럼. 이들은 낯시간 동안은 테마를 장애아동시설에 보내고 이후 번갈아 가며 테마를 돌본다. 그의 아내 셔리는 교회에서 상담하는 일을 한다. 그녀는 원래 사회학을 전공했으나 이 일을 위해 작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생활방식도 남다르고 진취적이다. 두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성(姓)도 새로 만들었다. 로올리라는 성이 그것이다.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미국의 관습으로 아내가 성을 바꾸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의 성을 모두 사용할까 하다가 너무 긴 이름이 불편할 것 같아서 새로운 성을 만들기로 하고 로올리라는 성을 생각해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엄마성 같이쓰기 운동'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행동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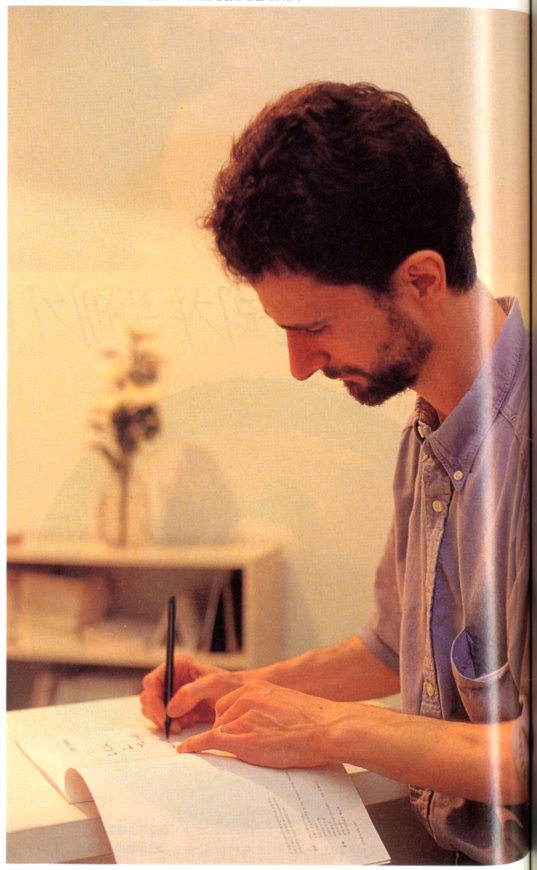
수묵화의 정신을 담고 있다

다시 그림이야기로 되돌아 가보자. 그는 한국의 민중미술과 미국의 정치미술 같은 현대 리얼리즘과 북유럽의 르네상스 그림으로부터 자신의 독창적인 양식을 창조했다. 이는 에그 템페라(egg tempera)라는 매체가 바탕이 됐다. 그의 독창적인 에그 템페라 기법은 수묵화와 르네상스 작가들의 기법으로부터 고안한 것이다. 에그 템페라는 염료가루에 달걀 기름을 섞은 것으로 건조가 빠르고 한번 마르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은 한 번 그리면 가필할 수 없다는 수묵화의 특성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에그 템페라는 조심스럽게 붓질을 하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또 붓질을 해야 하는 힘든 노동이 수반된다.

그는 수묵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묵화의 정신을 서구적 양식에 결합시켜 에그 템페라라는 기법을 고안한 것뿐 아니라 한지에 잉크로 그린 드로잉들은 수묵화와 기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수묵화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 번도 배워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에 그 느낌을 응용하고 반영합니다. 특히 잉크 드로잉

그는 기지에게 한지에 붓펜으로 이름을 써서 직접 명함을 만들어주었다.



그는 뚝배기에 장애아들을 그린다.
뚝배기는 김지하의 시 중에서 '밥은 하늘이다' 라는 표현에서 영향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뚝배기에 밥을 담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밥을 담아 먹는 뚝배기는 바로 하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뚝배기에 그린 장애아들은 그에게 하늘이다.

은 이미지를 지우거나 모래로 문지르고 그 안에 이미지를 다시 그리는 무척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남은 이미지는 매우 농밀합니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수묵화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의 수묵화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는 작품도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드로잉은 한지에 소년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방패연에 그려졌다. 소년이 절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드로잉은 사실은 장애아동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그린 것이다.

방패연에 그려진 작품은 좀더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을 제대로 날게 하려면 중심을 도려내야 한다. 그는 이 비어진 중심에 아이의 가슴이 놓이게 함으로써 사람의 중심을 비운다. 이 빈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메워야 하는 부분이며 우리 삶을 지탱하는 부분인 것이다. 여기에 팀 로올리의 작품이 지니는 예술의 진정한 역할과 도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뚝배기나 방패연 등에 장애아들을 그린 작업은 개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가족에 대한 정신분석이며, 감정적, 정신적 치료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예술적 성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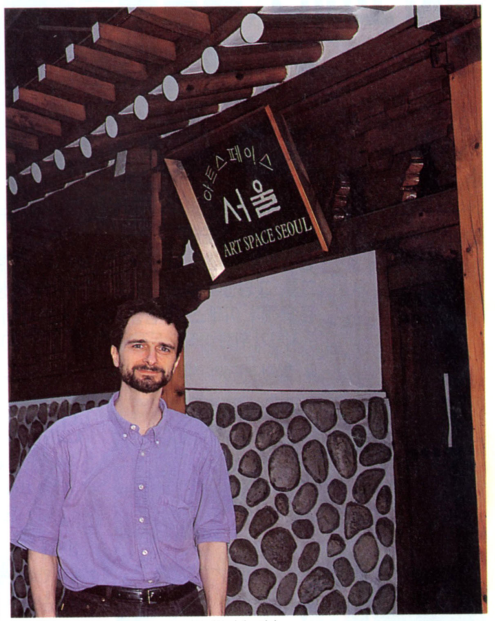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장애 어린이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주 솔직한 갈망에 감동받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 이러한 이미지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정상인에게는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애아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운다

팀 로올리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작업을 뚝배기나 연에다 했으며, 어디서 이 사물들을 구입했느냐"는 것이었다.

방패연에 그린 장애아. 구멍 뚫린 부분은 세상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가슴을 나타낸다.

"뚝배기와 방패연은 한국적인 소재라는 점에서 이번 한국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들입니다. 특히 방패연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뚝



그는 한국문화를 좋아할 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다.

배기는 시카고의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방패연과 한지는 전주까지 가서 구했습니다. 뚝배기는 김지하의 시 중에서 '밥은 하늘이다' 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았지요. 우리는 뚝배기에 밥을 담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담아 먹는 뚝배기는 바로 하늘이기도 합니다. 나는 뚝배기의 밑바닥에 장애아동들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내게 있어서 하늘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서 '인간' 과 '완전함' 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또한 테마와 장애아동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서 신이 인간이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그에게는 일종의 성상화와 같은 것이다.

아이들은 새처럼 지저귀고 매일 새로운 꿈을 꾼다. 이번에 전시된 그림 속에 담겨진 아이들 역시 그렇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엄연히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아픈 부분이다.

팀 로올리는 이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과장도 꾸밈도 없이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 일상에 찌든 우리가 누워 있는 아이의 눈망울을 부끄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